



‘반짝반짝’ 손연재

갤럽 조사 올해를 빛낸 스포츠 선수 1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올해를 빛낸 스포츠 선수 1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은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주도를 뺀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결과 손연재가 가장 많은 42.0%의 지지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에서도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성적(개인종합 5위)을 거둬 ‘2012년을 빛낸 스포츠 선수’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3위를 기록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직전 조사에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꼽힌 손연재는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로 기대에 부응했다.

올해 조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지막 무대로 현역 은퇴한 ‘피겨 여왕’ 김연아는 33.3%를 얻어 2위에 올랐다.

3위는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9.1%)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류현진이 1위, 김연아가 2위, 손연재가 3위였다.

세 차례 아시안게임을 통해 최다 메달(20개) 기록을 경신한 ‘마린보이’ 박태환(24.5%)이 작년 6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5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12.9%), 6위는 올 시즌 부상-슬럼프-수술-재활로 힘들어 한 해를 보낸 ‘추추트레인’ 추신수(5.5%)였다.

일본프로야구 챔피언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4번 타자 이대호(3.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3.1%), ‘빙속 여제’ 이상화(2.8%), 데뷔 20년을 맞은 삼성 라이온즈의 ‘국민 타자’ 이승엽(2.7%)이 7~10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목표는 U대회 金”

양학선, 수원시청 입단...세계선수권 대비 구슬땀

‘도마의 신’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22·한국체대)이 17일 수원시청에 입단했다.

양학선은 이날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실에서 입단계약서에 서명하고 내년 1월부터 수원시청 체조팀 선수로 활동하기로 했다. 계약금 2억원에 연봉 1억원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수원시청 체조팀은 감독, 코치와 선수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새로 입단한 선수는 양학선과 함께 배가람, 윤해영 등 3명이다.

내년 2월 한국체대를 졸업하는 양학선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영입을 시도했으나 자신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기계체조를 해온 배가람이 있는 수원시청을 선택했다.

양학선은 “첫 직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리우에서 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내년에는 고향인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 8위 안에 들어야 올림픽 직행 티켓이 나오기 때문에 리우 올림픽보다 중요시한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그는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천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금메달 획득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KIA 내년 시즌 첫 제물은 LG

3월 28일 챔피언스필드서 프로야구 개막전...10구단 팀당 144경기

‘김기태호’가 2015년 3월28일 LG 트윈스를 상대로 공식 출장에 나선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015년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 경기일정을 17일 발표했다. 신생팀 kt가 1군 무대에 합류하면서 2015 프로야구는 1982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10구단 체제로 전개된다.

3월28일 토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개 구단은 팀간 16차전씩 팀 당 144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올 시즌 128경기에서 16경기가 더 늘어났다.

개막 경기는 2013년도 순위를 기준으로 1-6위 팀, 2-7위 팀, 3-8위 팀, 4-9위 팀, 5위 팀 -kt 간 경기로 편성됐으며 5개 구장에서 2연전으로 펼쳐진다.

KIA는 LG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시즌 첫 경기를 치르고, 대구(SK-삼성) 잠실(NC-두산) 목동(한화-넥센) 사직(kt-롯데)에서도 2015시즌 개막전이 열린다.

개막전을 원정으로 치른 5개 팀은 3월31일부터 홈경기로 3연전을 갖는다. kt의 역사적인 홈 첫 경기도 3월31일 치러진다.

8월2일까지 3연전으로 일정이 진행되고, 9월13일까지 2연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715경기가 우선 편성됐다. 잔여 5경기과 우천 순연되는 경기는 9월15일 이후 재편성된다.

5월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에 따라 넥센, NC, 두산, 롯데, 한화의 홈 구장에서 개최된다. KIA는 어린이날 마산으로 NC와 대결을 벌인다.

퓨처스 올스타전과 올스타전이 열리는 올스타브레이크는 7월17일부터 19일까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삼성 가는 KIA 불펜포수 변선웅

“KIA에선 ‘소금’ 삼성에선 ‘빛’ 돼야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지만 정식 선수는 아니다. 그라운드엔 살고 있지만 그라운드에는 오르지 못한다. 하지만 그라운드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존재 ‘불펜 포수’의 이야기다.

변선웅(29)은 독특하고 특별한 불펜 포수다. 불펜포수는 이름처럼 불펜에서만 활약하는 포수다. 포수가 장비를 챙기느라 바쁠 때 경기 도중 살짝 모습을 드러내는 게 전부다. 그러나 경기를 위해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선수들보다 일찍 그라운드에 나와 연습 장비를 챙기고, 배팅볼을 던지기도 한다. 이들이 있기에 선수단이 척척 돌아간다.

2004년 KIA의 불펜 포수로 프로 세계에 뛰어난 변선웅은 속속들이 잘 아는 친구 김주형, 후배 이원석(두산)·허승민(삼성)과 모교의 정통기 우승을 지휘했던 동성고의 안방마님이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대학진학 대신 불펜 포수로 야구를 붙잡아야 했던 그에게 벌써 11년의 시간이 흘렀다. 정식 선수가 아니라서 겪은 설움도 많았지만 11년을 KIA라는 이름으로 살며 불펜 포수의 산중인이 됐다. 잠시나마 선수의 꿈을 이루기도 했다.

2008년 전지훈엔 당시 우연히 청백전을 뛰게 되었던 그를 포수 출신의 조범현 감독이 주목했다. 경기가 끝난

11년간 그라운드 뒤에서 경기준비
인천 AG서 류중일 감독 눈에 띄어
“후배들에게 희망의 본보기 되고 싶어”

후 “웨이트도 하고, 스윙 연습도 하라”는 조 감독의 얘기에 힘을 얻은 변선웅은 테스트를 보았다. 구단 사정상 선수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2010년 다시 기회를 얻어 신고선수가 됐다. 결과는 실패였지만 성실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변선웅이다.

변선웅은 “프로 세계는 냉정하다는 것을 느꼈고, 야구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야구는 눈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기회를 못 살린 것이다. 후회는 없다.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돌아봤다.

변선웅에게 2014년은 또 다른 기회와 시간이었다. 이순철 KBO 기술위원 추천으로 찾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 대표팀의 아시안게임 2연패라는 감

격스런 순간을 함께 한 변선웅은 뜻밖의 제안도 받았다.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던 류중일 삼성 감독이 파이팅 넘치고 성실한 그를 눈여겨 본 것이다. 류 감독의 추천으로 삼성으로부터 영입 제안이 왔고, 좋은 조건으로 내년 시즌 대구에서 새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변선웅은 “이왕 하는 거 파이팅 넘치게 하지는 생각인데 류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셨다. 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냉정하게 내 미래를 생각했다. 현장에서 함께 부딪혔던 고마운 분들이 많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다. 가치를 인정해준 새 팀에서 기회를 얻고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했다.

후배지만 듄직하게 존중해준 양현중, 앞줄살뽕 쟁겨준 김상훈·서재용·김병현 선배 등과의 추억이 눈에 밟히지만 변선웅은 특별한 도전을 선택했다.

변선웅은 “이 일이 쉽지는 않다. 1~2년 정도 하다 군대를 가는 알바 형식이 많은데 자기 하는 것에 따라서 현장 프런트로 빠질 수 있고, 선수로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다음에 들어올 후배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 비전 없는 직업이 아니라 이런 선배,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